

Antigravity와 함께하는 Vibe Coding

AI와 춤추듯 코딩하며 20분 만에 예약 봇 만들기

발표자: [발표자 성함]

Vibe Coding이란?

개발자가 ****"의도(Vibe)"****를 던지면, AI가 ****"구현(Gravity)"****을 담당하는 새로운 협업 방식

- 💡 **Idea First**: 문법보다 '무엇을 만들고 싶은가'가 중요
- ⚡ **Speed**: 생각하는 속도로 구현되는 결과물
- 🔄 **Feedback Loop**: 실행 → 확인 → 수정의 초고속 반복

오늘의 미션: 리조트 예약 모니터

목표: 정동진 솔라뷰 리조트의 특정 날짜(12/30, 12/31) 빈방 잡기

요구사항

1. **자동 로그인:** 매번 입력하기 귀찮음
2. **확실한 알림:** 빈방 생기면 즉시 소리/메시지 알림
3. **내 맘대로 설정:** 날짜와 확인 간격을 자유롭게 변경

난관 (Challenges)

1. 로그인 장벽: 세션 유지 및 복잡한 폼 처리

2. 복잡한 UI:

- 달력을 넘겨야 함 (11월 -> 12월)
- 특정 룸 타입(프리미엄 더블 트윈)만 봐야 함

3. 알림의 신뢰성:

- 카카오톡 API는 너무 복잡함
- 단순 팝업은 놓칠 수 있음

Phase 1: 시작과 피벗 (Pivot)

- 초기 시도: "카카오톡으로 알림 줘"
- **AI의 제안:** "카카오톡은 토큰 갱신이 복잡해요. 텔레그램 어때요?"
- **Vibe Change:** "오, 텔레그램이 더 쉽고 확실하네? 진행시켜!"
- **Lesson:** AI는 단순 코딩 봇이 아니라, **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파트너**

Phase 2: 핵심 로직 돌파 (Gravity)

문제: "그냥 URL만 찌르면 되는 거 아냐?"

현실: 로그인 → 페이지 이동 → 달력 파싱 → 날짜 확인

Antigravity의 활약:

- `HtmlAgilityPack`으로 HTML 구조 정밀 분석
- **ID 817** (프리미엄 더블 트윈) 전용 페이지 발굴
- "다음 달"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는 로직 구현

Phase 3: 디테일과 튜닝 (Vibe Sync)

사용자: "5초는 너무 느려. 1초로 해줘. 날짜도 내가 바꾸고 싶어."

즉각 반영:

- `config.json` 도입 → 컴파일 없이 설정 변경
- 하드코딩 제거 → 유연한 아키텍처로 진화

경험: 말 한마디면 코드가 바뀐다. 마치 옆자리 시니어 개발자와 대화하듯이.





Phase 4: 위기 해결 (Debugging)

버그: "알림이 한 번 오고 안 와요!", "12월 달력을 못 찾아요!"

해결 과정:

1. 상태 머신 수정: `NotAvailable` → `Available` 조건 완화 (반복 알림)
2. 브라우저 분석: AI가 직접 브라우저를 띄워 DOM 구조 확인 (`p.year_month`)
3. 로직 강화: 현재 연/월을 읽어 타겟 월까지 `Next` 버튼 클릭 반복

최종 결과물

-  자동 로그인 & 세션 관리
-  설정 파일(`config.json`)로 제어
-  텔레그램 봇 연동 (확실한 알림음)
-  스마트한 달력 탐색 (자동 월 이동)

시연 (Demo)

실제 프로그램 구동 화면

Key Takeaways

1. **개발의 민주화**: 코딩을 몰라도 논리(Logic)만 있으면 SW를 만들 수 있다.
2. **속도의 혁명**: 며칠 걸릴 작업을 20분 만에 완료.
3. **즐거움(Vibe)**: 에러와 싸우는 스트레스 대신, 창조하는 즐거움에 집중.

Q & A

감사합니다